■ 민족문화연구 제108호(2025.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079-109.
http://doi.org/10.17948/kcs.2025..108.079

백석의 첫 문단 교류에 담긴 자의식과 시적 전략*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발표된 작품의 의미와 그 좌표 설정을 중심으로—

유현수(柳賢洙)**

목 차

1. 최초의 문단 진출과 경계인이라는 위치
2. 병리적 세계인식의 전복과 한의학적 상상력 -「탕약」
3. 일본적 공간표상의 전복과 반근대적 전원지향성 -「이두국주가도」
4. 시적 감정의 변곡점과 발원처로서의 계기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수록된 백석의 시 「탕약(湯藥)」과 「이두국주가도(伊豆國湊街道)」를 대상으로 그의 문단교류에 담긴 자의식을 고찰하였고 그곳에 담긴 시적 전략의 재맥락화를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백석이 구인회 동인지에 참여했던 사건은 그의 최초 외부 문단 진출이라는 점과 그가 《시와 소설》에 작품을 발표했던 유일한 구인회 비회원이라는 점이 중첩되어 상당히 문제적 사건이라 볼 수 있었다. 당대 꾸준히 주목받아오던 구인회의 정치적 입지 상 백석의 합류는 복합적으로 분석할 여지가 다분하였고, 유일한 비회원이라는 정체성으로서 구인회 문인들과 공통적 자장을 형성하면서도 차별화된 개성을 겸비하였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탕약」은 우리 민족의 고유 한의학 문화를 긍정적으로 호명한 작품으로서 당시 모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9978)
**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더니스트를 중심으로 문단에 팽배하였던 병리적 세계관에 대한 대타의식 차원으로 읽어볼 수 있었다. 근대 서양의학을 채택하여 치유 불가능성의 미학을 드러내던 모더니즘 문학이 지닌 한계를 성찰할 수 있도록 상실된 민족성에 대한 복원과 무한한 시간관이 내포한 희망을 개성적으로 나타내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한의학적 상상력을 통해 모두가 '병리'에 주목하던 시기에 '정상'을 지켜가려는 품격 있는 선언이라 볼 수 있었다. 또한 「이두국주가도」는 '일본'을 주로 도회적이거나 근대적으로 사유하던 여타 문인들과 다르게 '이즈 반도'라는 전원적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한 작품이었다. '이즈 반도'는 백석이 「해빈수첩」, 「시기(柿崎)의 바다」에서부터 집요하게 다뤄온 유일한 일본의 지명인데, 특히 '국(國, 国)'이라는 메이지 이전 시대의 지명 활용을 통해 과거의 시간과 전원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함축해낸 점이 특징적이었다. 텍스트에 드러난 그의 전원지향성과 일본적 색채조차 방언으로 대체해내려는 모습에서 그 차별화된 개성은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백석의 작품에 내재된 '반근대성'도 구인회의 근대적 기획 속에서 심화된 측면이 있으며, 이 변주의 과정은 '근대성'의 한계를 성찰해줌과 동시에 근대적 지평을 확장시켜주기도 하였다고 볼 수 있었다. 백석의 시가 구인회 회원들의 사유와 일종의 '대립'을 보여주면서도, 그것보다 거시적 차원에서의 궁극적 '조화'를 갖추고 다채로운 '균형'을 구현해낸 것이었다.

한편 「탕약」과 「이두국주가도」에서 다소 직설적으로 노출된 '즐거움'의 감정이 시적 밀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점은 오히려 백석 시의 전개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해당 감정은 불과 한 달여 전 발표된 시집 『사슴』에서 찾을 수 없는 감정군에 속하였으며, 백석 후기 시의 절창이라 평가받는 시편들의 감정적 초석이자 원형이었던 것이었다. 그 사실은 두 작품이 감정론의 관점에서 『사슴』과 후기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문제작으로 해석될 여지를 충분히 마련해주었다.

주제어: 백석 연구, 구인회, 탕약, 병리성, 한의학, 이두국주가도, 일본, 감정, 즐거움, 변모양상

1. 최초의 문단 진출과 경계인이라는 위치

백석 시가 지닌 특유의 개성은 비교적 한눈에 잘 포착되는 편이다. 그러나 텍스트의 차별화된 질감에 비해 그의 시세계를 구획하고 좌표를 마련해주는 일은 언제나 난제였다. "그 시를 어떤 카테고리에 넣고 평하여 좋을런지 모

르”[1]겠다던 최재서의 평가처럼 백석의 시풍은 어느 한쪽으로도 쉽게 귀속시킬 수 없는 광범위한 중층성을 획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첫 시집 『사슴』(1936. 1)이 평북방언 및 향토적 제재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더니즘계 인사 김기림에게 상찬[2]을 받은 경위도 백석 시를 단순히 옛것과 새것이라는 평이한 이분법적 도식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맥락으로 읽어낼 수 있다. 말 그대로 백석의 시는 “우리 시단에 던진 커다란 폭탄”[3]에 가까웠다. 평북 방언을 비롯하여 그가 즐겨 활용했던 전통적 요소들은 당시 여러 모더니스트 문인들이 이국적 요소를 호명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려던 것과 더욱 차별화되어 낯설고 신선한 느낌을 선사해주기도 하였다.[4] 『사슴』 이후 시편부터는 상당 부분 작시법이 변화된 지점이 명징하게 감지되지만, 이질적 요소들의 동시적 공존[5]이라는 백석만의 변증적 사유는 꾸준히 유지되어온 것만은 틀림없다.

---

1) 석경, 「2월시단평-소감 이것저것」, 《인문평론》, 1940. 3, 62면.

2) “그 외관의 철저한 향토취미에도 불구하고 주착없는 일련의 향토주의와는 명료하게 구별되는 「모더니티」를 품고 있는 것”(김기림, 「『사슴』을 안고」, 《조선일보》, 1936. 1. 29, 참고)

3) “평안도 하고도 같은 정주의 사투리를 고대로 사용한데는 적지 않게 흥미를 가지면서도 작품 그 자신의 표현에 들어가서는 친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같은 지방의 인사가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나는 그윽이 가지고서 세상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 하던 차에 정지용군의 『백석군의 시는 그 우리 시단에 던진 커다란 폭탄이라』는 것을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김안서, 「칠월의 시단-신진의 매력」, 《조선일보》, 1940. 7. 24, 참고)

4) 러시아 형식주의자 토마체프스키는 문학의 가치를 참신함과 독창성에 두었는데, 그것을 지각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개별적 기법은 반드시 ‘매우 오래된 것’이거나 ‘매우 새로운 것’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빅토르 어얼리치, 『러시아 형식주의』, 박거용 역, 문학과지성사, 1983, 325면, 참고) 백석이 활용한 방언 및 수사법은 ‘매우 오래된 것’의 일환으로서 오히려 낯선 느낌을 자아내는 기법으로 판단해볼 수 있는데, 이국적인 시어들이 내포하는 새로운 감각과는 다른 결로서 참신함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김윤식의 경우에도 백석의 관북 사투리 구사가 이국적인 것과 등가를 이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윤식, 「허무의 늪 건너기-백석론」, 『김윤식 선집 5』, 솔, 1996, 197면, 참고).

5) “백석의 시에는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불교와 무속과 기독교, 토속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 고향과 타향, 설화와 과학, 언어적 측면에서는 방언과 표준어 등의 이질적이면서 심지어 대립적이기까지 한 문화가 한 시인의 시세계 속에 공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백석의 시에서 이러한 성향이 선조적이고 단계적인 발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데 있다.”(이경수, 「백석 시에 나타난 문화의 충돌과 습합 – 여행·음식·종교를 중심으로」, 『백석 시를 읽는 시간』, 소명출판, 2021, 82면, 참고)

하지만 백석의 시세계를 정의하는 어려움이 텍스트의 내적 특질에서만 기인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대다수의 문인들은 산문이나 평문을 통해 본인의 문학이념을 드러내거나 특정 문학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실증적 집필행적들은 그들의 문학적 굴곡을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아주 적합한 준거점이 되어주곤 한다. 그런데 백석은 자신의 시에 관해 어떠한 해명도 제공한 적이 없으며, 그가 다른 사람의 시에 대해 평가한 것조차 상당히 드물다.[6] 특정 유파에 공식적 일원으로 함께한 전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개신교계 학교인 오산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일본 아오야마(青山) 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유학생이었으며, 《조선일보》 기자 및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근무하기까지 하였던 일련의 모던보이적 삶의 궤적과도 상당히 괴리가 큰 문학을 선보이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백석 텍스트만의 문제성은 가히 두드러진다.

그런 백석의 전반적 삶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그가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 창간호(1936. 3)에 「탕약(湯藥)」과 「이두국주가도(伊豆國湊街道)」라는 두 작품을 발표한 사실은 매우 이례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시와 소설』은 백석의 작품 발표 지면상 최초로 외부 문학 장(場)에 진출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사슴』 출간 이전의 백석이 시를 지면에 발표한 것은 《조선일보》에 게재된 「정주성(定州城)」(1935. 8. 30)을 시작으로 잡지 《조광》에 「산지(山地)」, 「주막(酒幕)」, 「비」, 「나와 지렝이」(이상 1권 1호), 「여우난곬족(族)」, 「통영(統營)」, 「힌밤」(이상 1권 2호), 「고야(古夜)」(2권 1호) 등 8편[7]을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이때 백석은 《조선일보》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조선일보사에서 새롭게 창간하였던 시사종합지인 《조광》에 창간호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본인의 활동 근거지에서 작품을 발표한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유일한 시집 『사슴』의 발간 경위도 사정은 비슷하

6) 1940년 5월 9-10일 《만선일보》에 발표한 「슬픔과 진실-여수(麗水) 박팔양씨 시초 독후감」이 거의 유일하다고 여겨진다.

7) 1935년 11월 《조광》 창간호에 '백정(白汀)'이라는 필명으로 「늙은갈대의독백(獨白)」이란 시가 게재된 것에 대해 백석의 시로 판단해야 하는지 연구자 사이에 논란이 있지만, 본고의 논의와는 무관한 관계로 편의상 배제하였다.

다. 『사슴』은 100부 한정 자가본으로 출간되었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발기인 11명(안석영, 함대훈, 홍기문, 김규택, 이원조, 이갑섭, 문동표, 김해균, 신현중, 허준, 김기림)도 문인으로서의 관계라기보다 그가 몸담았던 조선일보사와의 인연에 가까웠다.[8] 『사슴』 간행 직후 지면 발표된 작품인 「통영(統營)」(《조선일보》, 1936. 1. 23), 「오리」(《조광》 2권 2호), 「연자ㅅ간」, 「황일(黃日)」(이상 《조광》 2권 3호)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더욱 문제적인 지점은 백석이 《시와 소설》에 시를 발표한 이후에 조차 관성의 뚜렷한 변화가 거의 감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938년 《삼천리문학》, 1939-1941년 《문장》, 1940-1941년 《인문평론》을 제외하고는 여러 조선어 잡지가 폐간되던 1941년 무렵까지도 백석은 《조선일보》, 조선일보사 발행 잡지인 《조광》과 《여성》, 그리고 조선일보출판부에서 간행한 서적인 『현대조선문학전집(시가집)』(1938. 4), 『조선문학독본』(1938. 10)에만 시를 발표해왔기 때문이다.[9] 1940년대 만주 체류 시절에 당시 재만 조선 시

8) "이들은 김해균을 제외하고 모두 조선일보사에서의 인연으로 백석하고 매우 절친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김해균은 만석꾼의 아들로 경성제대 영문과 재학 중에 신현중과 함께 반제동맹을 이끈 사람이었다. 김규택은 일본 가와바다 미술학교를 졸업한 학예부 미술기자로 신문만화를 그렸다. (…) 문동표는 방응모의 장학금을 받은 일본 유학파였다. 그는 사학자 문일평의 아들이었는데, 총무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갑섭은 경성제대 철학과 출신으로 방응모 사장의 최측근 중 하나였다. 그는 조사부에서 사장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다."(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94-95면, 참고.).

9) 백석이 해방 이전까지 발표한 작품을 지면별로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사전 지면 발표 없이 시집 『사슴』에 바로 수록한 시편들은 제외하였으며, 백석의 발표가 아닌 김종한의 산문에서 인용되어 알려진 「머리카락」도 배제하였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백석의 시는 거의 조선일보사 발행 지면에서 발표되어 왔고 지극히 한정적인 면모를 보인다. 당대 여러 시인들의 작품이 현재도 간혹 예기치 못한 지면에서까지 발굴되고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백석의 작품 발표 태도가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행보였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와 소설》과 더불어 그의 시가 상당히 예외적 지면에서 발견되는 것은 영생고보 제자였던 강소천의 동시집인 『호박꽃초롱』의 서시를 써준 일밖에 거의 없는 편이다.

발표지면	작품명	편수	비고
《조선일보》	「정주성」, 「통영」(2), 「창원도: 남행시초 1」, 「통영: 남행시초 2」, 「고성가도: 남행시초 3」, 「삼천포: 남행시초 4」, 「안동」, 「구장로: 서행시초 1」, 「북신: 서행시초 2」, 「팔원: 서행시초 3」, 「월림장: 서행시초 4」	11편	

인들이 대부분 참여했다는 『만주시인집』과 『재만조선시인집』에 두 번 모두 백석이 출품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의 소신적 행보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이다.[10] 백석이 이례적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던 《삼천리문학》, 《문장》, 《인문평론》은 계파성을 초월한 듯 보이는 종합문예지로서 당대 중견 문인들이 대거 활동했으므로 백석의 참여가 그렇게 특수해 보이지는 않을뿐더러 오히려 시전문지 등의 군소 지면이나 특정 진영이 주도적이었던 잡지는 그가 의식적

《조광》	「산지」, 「주막」, 「비」, 「나와 지렝이」, 「여우난곬족」, 「통영」(1), 「힌밤」, 「고야」, 「오리」, 「연자ㅅ간」, 「황일」, 「북관」, 「노루」, 「고사」, 「선우사」, 「산곡」, 「산숙」, 「향악」, 「야반」, 「백화」, 「삼호」, 「물계리」, 「대산동」, 「남향」, 「야우소회」, 「꼴두기」, 「귀농」	27편	조선일보사 간행
《시와 소설》	「탕약」, 「이두국주가도」,	2편	
《여성》	「바다」, 「단풍」,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 「내가생각하는것은」, 「내가이렇게외면하고」, 「가무래기의 낙」, 「멧새소리」	7편	조선일보사 간행
《삼천리문학》	「추야일경」, 「석양」, 「고향」, 「절망」	4편	
『현대조선문학선집』	「개」, 「외가집」	2편	조선일보사 간행
『조선문학독본』	「박각시 오는 저녁」	1편	조광사 간행
《문장》	「넘언집 범같은 노큰마니」, 「동뇨부」, 「한남도안」, 「목구」, 「북방에서-정현웅에게」, 「허준」, 「국수」, 「힌바람벽이 있어」, 「촌에서 온 아이」	9편	
《인문평론》	「수박씨, 호박씨」, 「조당에서」, 「두보나 이백 같이」	3편	
『호박꽃초롱』	「서시」	1편	제자 강소천의 동시집 축시

10) 최현식은 “조선과 만주, 일본 문학자가 함께 참석한 〈내선만(內鮮滿)문화좌담회〉에서의 의도된 침묵, 박팔양 시집 평에서 보여준 ”놉흔 시름“과 ”놉흔 슬픔“을 갖춘 시혼의 열렬한 강조, 박팔양, 유치환, 함형수, 김조규 등 만주 거주 조선시인 거의가 참여한 『만주시인집』과 『재만조선시인집』에 대한 출품 거부, 해방 이전까지 시 쓰기, 아니 시 발표의 자발적 중지” 등의 백석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 언어제국주의에 대한 격렬한 거부와 실천을 읽어내기도 하였다(최현식, 「‘만주(북방)’, 내적 망명 또는 환대의 場 - 白石의 ‘만주시편’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12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23, 383면, 참고). 목적이야 어떠하든 간에 백석의 시 발표가 본인의 엄격한 절제 아래 상당히 제약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으로 청탁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게끔 만들어주기까지 한다. 1930년대 후반부가 각양각색의 시전문지가 범람했던 시기[11]였으며 백석의 이름이 당대 '시단월평' 등에서 꾸준히 거론되던 것에 입각한다면 충분히 그에게도 작품 청탁이 여럿 갔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결국 백석이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참여한 사실은 그의 작품이 최초 외부 지면에 실렸다는 점 이외에도 '나름의 소극성'이라는 그의 조심스러운 작품 발표 경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난 특수 행적이라는 점에서 거듭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백석은 『시와 소설』에 작품을 발표한 유일한 구인회 비회원이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12] 『시와 소설』 창간호는 구인회(박팔양, 김상용, 정지용, 이태준, 김기림, 박태원, 이상, 김유정, 김환태 / 잡지에 명시된 순)의 처음이자 마지막 동인지였고 박팔양과 김환태를 제외한 회원들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 백석만이 회원 명단에 없음에도 유일하게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구인회는 창립 시기부터 줄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순수친목단체라 표방하였음에도 카프(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계 등 여러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의식되어온 단체인데,[13] 김기림, 정지용, 이상, 박태원 등 1930년대 주요 모더니스트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면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다.[14] 물론 백석의 합류에

---

11) 《시원》(1936), 《낭만》(1936), 《시인부락》(1936), 《시건설》(1936-1940), 《시인춘추》(1937-1938), 《생리》(1937), 《자오선》(1937), 《맥(貊)》(1938-1939), 《아(芽)》(1938), 《웅계》(1939), 《시림》(1939), 《시학》(1939-1940) 등.

12) 잡지 두 번째 페이지에 회원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창간호에 글을 발표한 사람 중 백석만 이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잡지 말미에 수록된 광고에서 백석의 『사슴』을 이태준의 『달밤』, 정지용의 『정지용시집』, 김기림의 『기상도』와 함께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법하다.

13) 백철, 「사악한 예원의 분위기(하)」, 《동아일보》, 1933.10.1; 홍효민 「1934년과 조선문단」, 《동아일보》, 1934.1.4-10; 임화, 「1933년의 조선문학의 제경향과 전망」, 《조선중앙일보》, 1934. 1.1-14; 홍효민, 「조선문단 및 조선문학의 전진」, 《신동아》, 1935.1; 박승극, 「조선문학의 재건설」, 《신동아》, 1935.6; 김두용, 「'구인회'에 대한 비판」, 《동아일보》, 1935.7.28- 8. 1; 김두용, 「조선문학의 평론확립 문제」, 《신동아》, 1936. 4 등.

14) 김아름은 카프 해산 이후 리얼리즘계가 위축된 시기에 발행된 《시와 소설》에 대해 "구인회가 과도기 속에서 자신들을 정위시키기 위해 모색한 결과하고 보아도 무방하다"(김아름, 「구인회의 『시와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글쓰기의 양상들」,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203면, 참고)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시와 소설》 간행에 정치적 포부가 담겨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는 문제라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백석의 참여 자체는 다양한 정치적 사유로 해석될 여지가

『사슴』의 발기인이었던 김기림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해 보이나 백석의 집요한 성격상 본인의 충분한 숙고 하에 성사되었을 것임은 더욱 분명하리라 본다.

실제로 『시와 소설』에 작품을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인회 회원들에게조차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때 그러한 자의식은 자연스레 문인들 사이에 암묵적인 경쟁 심리를 자극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15] 특히 정지용의 발표작의 경우 일종의 강박관념이 상당수 반영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가 게재한 「유선애상(流線哀傷)」은 그의 평소 시편과 비교할 때 매우 이질적인 느낌마저 풍긴다. 그 동안 정지용 작품이 보여준 특유의 감각적 성격과는 다르게 많은 해석상의 의문을 품게 만든다는 점에서 수수께끼에 가까운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상이 발표하였던 「가외가전(街外街傳)」은 그가 구인회 동인들에게 자화자찬할 정도로 자신 있게 내보인 작품이라고 하는데,[16]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작품 길이도 훨씬 늘어난 채 더욱 복잡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백석 또한 이들과 함께 《시와 소설》에 작품을 발표하게 되면서 모종의 내적 압력을 체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이 지니던 강박관념을 비슷하게 공유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유일한 비회원으로서 가지는 '경계인'으로서의 차별성까지 중층적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다. 구인회 회원들과의 시대적 접점을 가지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고유한 시적 지향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양면적 입지로서의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현재 백석과 구인회의 만남을 전문적으로 다루거나 《시와 소설》에 게재된 「탕약」과 「이두국주가도」에 주목한 연구는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다. 그 까닭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탕약」과 「이두국주가도」가 그동안 백석의 시세계에서 핵심적 위치로 논해지던 작품들이 아니다.[17] 전체

충분할 것이다.

15) 이숭원은 《시와 소설》에 작품을 발표하는 작업에 대해 자신이 당대 일급의 모더니스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이숭원, 『그들의 문학과 생애-김기림』, 한길사, 2008, 107면, 참고)

16) 신범순, 『꽃속에 꽃을 피우다 : 이상 시전집』, 나녹, 2017, 418면.

적인 인용 빈도가 낮은 편이다보니 작품의 탄생 배경까지 논의가 넘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백석이란 인물이 직접 남긴 의견이나 가치관이 양적으로 빈약해서 문학 장의 실증적 지형을 파악하는 경우에 호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백석 시 연구가 주제적, 창작방법론적, 어휘 및 문체론적, 서지적 차원 등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그의 행적에 주목하는 연구가 일본이나 만주 같은 특정 장소와 결합되었을 때만 소량 다뤄지는 것도 그러한 이유를 경유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간혹 언급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거의 '구인회'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백석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이명희의 논의는 《시와 소설》 속 백석이란 존재에 대해 최초로 의미부여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그 역시 "그의 시는 한 울타리에서 어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소를 지니고 있었던 것"[18]이라 밝히며 자신이 제기한 '언어'라는 구인회의 공통적 정체성으로 백석을 포섭시킬 뿐이었다. 김아름의 논의는 이와는 반대로 백석을 구인회의 정체성과 균형을 맞춰줄 서정성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19] 김기림, 정지용, 이상의 모더니즘 시편과 균형을 맞춰줄 작품으로 김상용과 함께 백석의 시가 기능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백석의 시가 《시와 소설》 안에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지만, 백석의 의도나 주체성은 역시 소거되고 구인회의 기조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

백석과 그의 《시와 소설》 발표작 자체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로는 소래섭의 논의가 유일하다. 실제로 그는 "선행 연구에서 두 작품의 연관성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던 것은 두 작품의 공통점보다는 차이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일 것"[20]이라 언급하며 「탕약」과 「이두국주가도」의 공통적 자질에 대해

17) 특히 「이두국주가도」의 경우에는 '일본 기행시'의 일환으로 다른 작품들과 다뤄지는 경우나 전편해설이 이루어진 전집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호명되지 않는 편이다. 연구자별로 1편씩 도맡아 해설을 진행한 『백석 시 읽기의 즐거움』(서정시학, 2006)에서도 「이두국주가도」는 제외된 몇 편에 속하였을 정도로 등한시된 편이었다.

18) 이명희, 「『시와 소설』과 '구인회'의 의미」, 『상허학보』 3, 상허학회, 1996, 156면.

19) 김아름, 앞의 글, 208면.

20) 소래섭, 「백석 시의 '녯적'에 담긴 전통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회,

살폈다. 그래서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녯적'이라는 시어에 주목하여, 백석이 당대 모더니스트들과는 다르게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거의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적응력을 갖추고 있는 '진정한 전통'에 몰입하고자 하였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21] 그의 이러한 견해는 모더니즘 계열과는 대별되는 백석 시의 전통 지향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두 작품의 공통적 특성을 발견하려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그것이 과연 백석이 굳이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라는 두 작품을 선택하여 『시와 소설』에 제출하게 된 내막까지 완전히 해소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녯적'이라는 시어는 백석이 「고향」, 「목구(木具)」, 「국수」 등 다양한 시편에서 빈번하게 활용하였고, '녯', '녯날', '녯말', '녯사람', '녯성', '녯조상', '녯투' 등 시어의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면 '녯'이라는 수사가 백석 시 전반에 고루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22] 그러므로 '녯적'과 '전통'은 백석 시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에 오히려 가까울 것이며, 그것을 활용하여 백석의 《시와 소설》 합류에 개입된 그의 독특한 자의식까지 추적해내기란 어느 정도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시와 소설》에 수록된 백석의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를 세밀하게 살펴 왜 이 두 작품이 하필 그의 최초 외부지면 발표작이자 구인회 동인지 수록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추정코자 한다. 이 작업은 백석이 당대 문단과 직접적으로 겹쳐지는 순간의 자의식을 잘 목도시켜 주면서도 그가 내세운 가치관과 시적 전략을 잘 확인시켜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해당 두 작품을 『사슴』과 그 이후의 시편을 잇는 가교로 설정하여, 『사슴』을 계승해내면서도 결별하는 지점임을 밝히고, 그 뒤로 확장되어나간 시세계의 실질적 초석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2019, 94면.

21) 앞의 글, 100면.

22) '녯적'과 유사한 성향의 시어들이 실제 시 작품에 활용된 예시는 고형진, 『백석 시의 물명고』,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를 참고할 것.

2. 병리적 세계인식의 전복과 한의학적 상상력 - 「탕약(湯藥)」

잡지에 순서상 먼저 수록된 「탕약」부터 살펴보자.

> 눈이오는데
> 토방에서는 질하로옿에 곱돌탕관에 약이끓는다.
> 삼에 숙변에 목단에 백봉령에 산약에 택사의 몸을보한다는 六味湯이다.
> 약탕관에서는 김이올으며 달큼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가나고
> 약이끓는 소리는 삐삐 즐거웁기도하다.
>
> 그리고 다딸인약을 하이얀 약사발에 밭어놓은 것은
> 아득하니 깜하야 萬年녯적이 들은듯한데
> 나는 두손으로 꽃이 약그릇을들고 이약을내인 녯사람들을 생각하노라면
> 내마음은 끝없시 고요하고 또 맑어진다.
>
> -「湯藥」 전문

'탕약'은 오래도록 우리 민족이 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복용해온 것으로서 지극히 동양적인 의약물을 상징한다. 우리 조상들의 '치료제' 역할을 해오며 상당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근대 서양의학이 도입된 이후부터는 지식인들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진 대상이기도 하다. 실제로 당대에도 한의학이 여전히 각지에서 편재하고 있던 주요 생활문화였음에 틀림없지만 일제 식민 치하가 시작된 직후부터 끊임없이 가치를 위협받아온 것도 사실이다.[23] 1930년대 문단의 분위기와 현대적 감각을 중시하던 모던보이 문인들에게 소재 면에서 서양의학에 친화적 양상을 보이는 것도 시기적 인과관계상 상당히 매끄러운 일이다. 조금 바꿔 말하자면, '탕약' 등의 구체적 전통 문화

23) "대한제국이 오랜 전통으로 민간의 주축 의료를 이루고 있던 한의학을 용인한 반면, 일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했다는 것이다. 총독부는 당장의 의료 공백을 막고 기존의 한의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당대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개업을 인정했지만, 한의사 교육이나 신규 면허는 철저히 억제해 장기적으로 한의학을 도태시키는 정책을 취했다. 한의학의 한시적 인정 정책은 1913년의 의생 규칙(醫生規則) 반포로 공식화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사보다 한 단계 낮은 '의생(醫生)'으로 규정되어 의료 체계가 이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한의학 억제 정책으로 인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의는 꾸준히 줄고 양의의 수는 계속해서 늘었다."(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 기술과 삶의 변화』, 두산동아, 2005, 306면, 참고.).

를 호명하고 복원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욱 특수한 시대 인식에서 비롯되는 작업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때 백석의 시는 '육미탕'이라는 더 구체적 명칭까지 언급하며 탕에 들어간 전통적 약재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나열함으로써 생생한 현장감과 문화적 정취를 형상화한 모습이다. 다른 주제의식을 설명하기 위해 가볍게 도구로 차용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탕약' 문화에 주목하면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산시켜나간다.

이 시가 발표되던 무렵, 여러 문인들이 매료되었던 '서양의학'에 대한 보편적 관심을 발견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 그중 모더니스트들의 경우 양의학적 상상력을 작품의 소재로서 더욱 많이 차용하기도 하였다.[24] 특히 구인회에서 《시와 소설》의 편집을 도맡았던 이상은 병리적 모티프와 근대 의학적 상상력을 상당수 활용한 편이다. 그는 「오감도 시제4호」에서 자신을 '책임의사(責任醫師)'라고 천명한 바 있고 「거울」 계열 시편에서는 '진찰', '촉진(觸診)' 등의 시어를 적극적으로 구사했다. 심지어 '해부학', '맹장염', '뇌수체환문제' 등의 의학 전문지식을 시에 도입한 모습은 이상만의 집요한 근대 의식을 짐작케끔 만들어준다.[25] 또한 소설가 박태원의 경우에는 총 19편의 시를 남긴 적이 있는데,[26] 1920년대부터 1933년까지 발표된 18편의 시가 서정시였던 것과 달리 구인회 가입 이후인 1935년 《가톨릭청년》에 발표된 「병원」만큼은 우중충한 병원의 모습과 환자의 병리적 고통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상용이 《시와 소설》에 발표한 시론 「시(詩)」에서는 "이 환자를 몽유병자라 진단한 명의(名醫)의 과학에 오류가 없다"라는 구절로 시의 속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당대 여러 소설 작품에서 '병원', '의사', '환자' 등을 차용한 구도는 더 흔하게 포착되는 편에 속한다. 따라서 그들이 빈번하게 보여준 '양의학적 상상력'과 백석의 '한의학적 상상력'을 비교해본다면, 백석 시가 지닌 시대적 의미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게 된다. 유종호도 문학사적 맥락에

24) 이상, 김기림, 박태원, 이태준 등의 구인회 회원들의 작품에도 '의사'나 '병원'이 긴요하게 활용되곤 한다.

25) 유현수, 「이상 시에 나타난 근대 학문의 의미 고찰 - '과학', '수학', '의학'을 중심으로」, 『이상리뷰』 17, 이상문학회, 2021, 123-125면.

26) 박태원의 시에 관해서는 곽효환, 『구보 박태원의 시와 시론』, 푸른사상, 2011을 참고할 것.

서 백석의 방언 구사가 당시의 모더니즘 시어에 대한 비판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탕약' 등의 소재 선정 역시 백석의 배타적 방언 지향과 불가피하게 얽힐 수밖에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27] 관점을 약간 달리하면, '탕약' 등의 구체적 생활 정서는 모더니즘에 대한 반명제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탕약」에서 더욱 눈여겨 봐야할 지점은 시적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끓고 있는 '육미탕'을 바라보며 즐거움과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모더니즘 계열 시편들과 정서면에서 상호 이질적 경향에 해당한다. 백석의 「탕약」이 긍정적인 정서를 직접적으로 내비치는 것과 달리 모더니즘 계열의 양의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시편들은 보통 일련의 장면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모더니스트 시인들은 세상을 병리적으로 인식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을 환자로 설정한다. 그리고 그들을 의학적으로 손쉽게 치유할 수 있게끔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치유 불가능성의 심연 속에 던져두면서 미학적인 중층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러한 세계관은 비단 모더니스트 시인뿐 아니라 윤동주가 세상이 온통 '환자투성이'로 보였다는 이유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원래 『병원』이라 붙이려고 하였다는 고백처럼 당대 전체 시단에 더욱 광범위한 인식적 지평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면 백석은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치유법을 호명하면서 오히려 치유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내포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전체 시단과 세상 자체를 병리적으로 인식하는 세계관을 일부 공유하면서도 자신의 개성으로 그것을 비틀고 전복시키면서 도리어 간과되고 있던 민족적 본질을 '건강'의 차원으로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실 '건강'이란 속성은 그 자체로만 온전히 파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파악이 가능한 대상은 '병리'뿐이며, 그러한 병리적 요소가 부재한 상태를 소위 '건강'이나 '정상'이라 칭하곤 한다. 조르주 캉길렘은 "그 자체로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상'과 '병리'를

27)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261-264면.

모두 규범으로 표현하고 그 규범들 간의 우열로 존재성이 정의된다고 보았다.[28] 다시 말해서 백석의 「탕약」만을 접한 수용자가 해당 텍스트를 아무런 비교군도 없이 '시대적 건강'이란 가치로 읽어내기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 말은 당대 문단에 팽배하였던 병리적 세계관에 비추어 봤을 경우에만 비로소 상실된 '건강'의 복원과 그에 대한 순수한 열망이 텍스트 속에 함의된 가치로서 잘 전달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으로서의 규범을 지켜가려는 품격 있는 선언이 어떻게든 요청되어야만 했던 시기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모더니스트들이 보여준 근대인의 불안과 번민, 치유 불가능성의 심연, 근대문물의 위압감 등이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미학적 효과를 거둔 것은 자명하다.[29] 다만 그것은 무책임한 회피나 허무주의적 사유로 받아들여질 여지를 늘 겸할 수밖에 없기에 그 시기를 온전히 지켜내려는 보수적 시각의 대두는 언제나 시대적 다양성의 균형을 잡아주게 된다. 약의 향내와 끓는 소리마저 감각적으로 완상하고 있는 원초적 자태는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생명력을 강하게 담지해낸다. 결국 「탕약」은 소재와 정서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모더니즘 시편들과 크게 변별됨으로써 백석의 시적 정체성을 여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전략적 선택으로 충분히 읽힐 수 있다. 그 면모는 1938년 발표된 백석의 「고향」에서 '의원(醫員)'[30]을 찾아가 '맥'을 짚으면서 공동

28) "소위 정상이란 사실은 규범의 표현이다. 어떤 사실이 더 이상 규범을 참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 규범의 권위는 박탈된다. 그 자체로 정상적이거나 병리적인 사실은 없다. 이상이나 돌연변이는 그 자체로 병리적은 아니다. 이들은 가능한 생명의 또 다른 규범을 표현한다. 만약 이러한 규범들이 안정성, 번식성, 생명의 변이성에서 앞선 특정한 규범에 비해 열등하다면 이러한 규범들은 병리적이라고 말해질 것이다. 만약 이러한 규범들이 결국은 상응하는 동일한 환경이나 보다 우위의 환경에서 나타난다면 이들은 정상적이라고 말해질 것이다. 그들의 정상성은 그들의 규범성에서 올 것이다."(조르주 캉길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여인석 역, 그린비, 2018, 167면, 참고.).

29) 1936년 1월 《조광》에 실린 이태준의 「가마귀」에는 병리적으로 미학화가 이루어지는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근대적 교육 및 교양, 도회적이고 서구적인 패션, 불치병 환자 등을 상징하며 근대적 미학과 욕망의 층위를 관통하게끔 설정된 모습이다. 또한 박태원의 대표작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는 "구보의 질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상징적인 질병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직접 기술할 정도로 질병 개념이 시대적으로 상당히 표상화되어 있다.

30) 표준국어대사전에 '의원(醫員)'을 찾아보면 "의사와 의생(醫生)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의원'이라는 시어의 채택도 민족적 정통성을 획득할 수 있는 방안이자, 당대 문학이 빈번하게 호명해오던 '의사'와도 대별되는 구도의 설정이며, 공식적 식민지 용어인 '의생'으로도 격

체적 연대감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한다.

한편 '탕약'에 대한 백석의 공경은 "만년(萬年)녯적"이란 무한한 시간관으로 도약함으로써 소위 모더니즘이 지닌 동시대적 현대성이나 미래 지향보다 더 확장된 시간의 함축을 함의하는 데까지 도달해 버린다. 일종의 '블랙홀'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득하니 깜"한 '탕약'으로부터 역사성의 경계마저 초월해버리는 시적 간극을 성취해낸 것이다. 이상이 자신을 "19세기와 20세기 틈바구니에 끼어 졸도하려 드는 무뢰한"이라 자칭했던 정체성과는 확연히 다른 "인간의 유한한 의식을 초월한 무량한 과거에 대한 동경이 나의 마음을 영원히 정화"[31]할 수 있다는 본인만의 고유한 시적 지향을 선명하게 환기시켜준 모습이다. 다만 「탕약」이 시적 완성도 차원에서 제재에 대한 직관적 관찰 및 다소 무매개적 초월로 이루어지기에 백석의 다른 이후 시편보다 성긴 구성을 취한다는 것도 충분히 납득되는 평가이기도 하다. 그것이 「탕약」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동안 더 강한 이목을 끌지 못한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야말로 백석 시의 변모와 발전 궤적을 통시적으로 툐아볼수록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만 하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사슴』 수록 시편이 주로 전통적 풍물이나 관습을 활용하여 현상이나 경험의 세계를 다루었다면, 그 이후 시편부터 줄기차게 확산되는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의 발로가 「탕약」의 상상력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목구」에 나타난 '가계적(家系的)' 수직축이나 「북방(北方)에서」에서 발견되는 '민족적' 수직축 등에 축적된 유장함도 「탕약」에 나타난 원형적 시간관으로부터 기원된 것으로 읽어볼 수 있다. 아득하기만 하였던 과거의 추상성은 "대대로 나며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국수」)을 경유하기도 하고 "소수림왕"이나 "광개토대왕"(「북신(北新)-서행시초 2」) 같은 역사적 인물의 자취와 맞닿아보려는 시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백석의 사유에 역사성이 배태된 계기에는 물론 다양한 원인이 중첩되었겠지만, 시대적 특수성과 더불어 구인회 동인지를 통해 문단에 본격

하되지 않는 균형의 확보이기도 하다.

31)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231면.

편입되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좌표에 대한 정체성적 고뇌가 유효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 보는 시각도 이젠 함께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3. 일본적 공간표상의 전복과 반근대적 전원지향성 - 「이두국주가도(伊豆國湊街道)」

다음으로 살필 작품은 《시와 소설》에 수록된 백석의 또 다른 작품 「이두국주가도」이다. 고유한 민족정서와 토속방언으로 점철된 백석의 시세계 중 '일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는다는 점에서부터 이 시는 선험적으로 문제적 쟁점을 담보한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억압의 주체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의 산물이자 제국이라는 거대한 기표로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식민지기 문학에서 소비된 일본 표상들은 근대와 반근대, 식민과 탈식민, 협력과 저항, 민족주의와 다원주의, 동양주의와 세계주의 등 다차원적 구도 내에서 여러 층위로 굴절되어 제각기 입체적으로 착종된 맥락을 거느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기림, 김상용, 김환태, 박태원, 이태준, 정지용 등 과반 이상의 구인회 회원들도 동인 활동보다 이전에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보내며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바 있다. 그리고 《시와 소설》 발간 직후인 1936년 4월에는 김기림이 일본 동북제국대학(東北帝国大学)으로 2차 유학을 감행하기도 하였고, 이상 역시 동경행(東京行)을 부르짖다가 같은 해 말경 일본으로 건너가는 행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김환태는 「교토(京都)의 3년」(1936. 8. 1.)이란 글을 통해 교토에서의 3년이 "오랜 학창시대를 통하여 가장 유쾌했던 시대"[32]라고 직접 밝히면서 일본 생활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구인회 동인들은 적어도 이른바 민족주의계열 인사들보다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환상이 심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32) 김환태, 「교토(京都)의 3년」, 『김환태 전집』, 문학사상사, 1988, 320면.

백석의 시세계 또한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이후부터 시작된다. 그는 1930년부터 1934년까지 일본 동경의 아오야마(青山) 학원 영어사범과에서 수학하였는데, 실제 유학과 관련된 그의 전기적 행적은 여타 시인들과 언뜻 비슷한 시절을 겪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장소성과 그곳에서 얻은 경험을 색다른 방향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자신의 시적 개성을 확립시키는데 적극 활용해 버린다. 백석은 일본 체험을 시에 담을 때 일본 지역 중에서도 자신이 체류했던 수도 도쿄를 비롯하여 근대화된 도회 공간을 전혀 배경으로 삼지 않고 '이즈(伊豆) 반도'라는 전원적 공간을 방문한 내용만을 여러 편에 나눠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백석이 일본을 배경으로 쓴 작품은 「이두국주가도」를 포함해 「해빈수첩(海濱手帖)」(《이심회 회보》 창간호, 1934. 3. 22)이라는 수필과 「시기(柿崎)의 바다」(『사슴』)라는 시가 전부인데, 모두 '이즈 반도'에 속한 지역을 문학적 공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일본을 텍스트화 할 때조차 근대 도시적 요소에 주목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방증해준다. 대다수가 도쿄나 교토 등 일본의 대표 도시에 주된 초점을 맞추거나 지방을 다루더라도 근대적 요소가 깊이 개입되어 있을 때,[33] 오히려 일본에서도 지극히 전원적 공간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당시 보편적 지식인들의 관심사와도 상이한 것으로서 모종의 균열을 창출해낼 수 있는 차별성을 지닌 것이었다.

> 녯적본의 휘장마차에
> 어느메 촌중의 새새악시와도 함께타고
> 머ㄴ바다가의 거리로 간다는데
> 금귤이 눌 한 마을마을을 지나가며
> 싱싱한 금귤을 먹는것은 얼마나 즐거운일인가.
>
> -「伊豆國湊街道」 전문

33) 김기림은 1939년 《문장》 지를 통해 일본의 해안 지역 기행 체험을 다룬 시편들을 여럿 제출한 바 있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에노시마(江の島)와 가마쿠라(鎌倉), 히로시마현(広島県) 아키사이자키(安芸幸崎) 등을 방문하였는데, 이때에도 바다에 있는 '구축함(驅逐艦)', '모터보트', '기선(汽船)' 등을 바라보는 모습을 시에 담아내었다.

「이두국주가도」에 나타난 내용 자체는 매우 간단하다. 새색시와 휘장마차를 함께 나눠 타고 바닷가로 향하면서 금귤을 먹는 즐거운 소회를 5행으로 담아낸 소품이다. 이 작품이 구인회 동인지 출품작이라기엔 시적 정황이 지나치게 소략하다는 느낌을 풍기기도 한다. 따라서 이 시만을 가지고 내재적 가치 부여를 집중적으로 시도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두국주가도」가 기왕의 백석 시 연구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까닭과도 상응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두국주가도」만큼은 시적 배경이나 차용된 소재에서 일종의 정치적 존재 이유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텍스트에 함의된 가치 발굴에 더더욱 적합할 것이며, 그 작업이 구인회 지면을 빌려 '일본'이라는 당대 문제적 기표를 변용해버린 백석만의 독자적 사유를 실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이 작품은 시간축(과거지향)과 공간축(전원지향)의 동시적 교란을 통해 백석만의 가치관과 시적 전략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례라 볼 수 있다. 먼저 제목인 '이두국주가도'라는 일본 지명에는 과거의 역사적 시간성이 내재해 있다. '이두국주가도'는 일본어로 '이즈노쿠니미나토카이도(いずのくにみなとかいどう)'라고 하며, 현재 이 길은 시즈오카현(静岡県) 이즈(伊豆) 반도 지역의 해안도로(湊街道)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시에서는 '이두국(伊豆國)'이라 하여 '국(國, 国)'이라는 행정구역을 활용하는데, '쿠니(くに)'라 읽는 이 국토 구획 단위는 메이지 시대 초기인 1871년 폐번치현(廃藩置県)의 일환으로 지방 행정구역 체계가 '도도부현(都道府県)'으로 개편되면서 일본의 근대화와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진 명칭이었다. 그렇지만 '국(國, 国)'은 일본이 과거 아스카 시대(592-710)에 '오기칠도(五畿七道)'로 광역행정체계를 나누면서부터 '율령국(律令国)' 또는 '영제국(令制国)'이라 불리며 1200년 가까이 일본 열도를 구획해왔던 단위로서 말 그대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옛것'인 셈이다. 이즈 반도도 오랜 기간 '이두국/이즈노쿠니(伊豆國)'[34]로서 독립적이게

34) 현재 시즈오카현 이즈 반도에는 이즈노쿠니시(市)가 존재하는데, 2005년 행정구역 상으로 시보다 낮은 '정(町)' 단위의 세 곳인 이즈나가오카쵸(伊豆長岡町), 니라하라쵸(韮山町), 그리고 오오히토쵸(大仁町)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새로운 지명에 해당한다. 백석이 호명한 전근대적 지명을 현대 지

지내왔지만, 폐번치현 이후 아시가라현(足柄県)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가 1876년 도토미국(遠江国), 스루가국(駿河国)이던 지역과 통폐합되어 최종적으로 시즈오카현에 소속되게 되었다. 1930년대 식민지 본국의 수도 도쿄로 유학을 떠났던 백석이 그로부터 50여 년 전 소멸되었던 '전근대적' 주소를 시에 호명한 것은 결코 단순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35] 이것은 「탕약」을 통해 한의학을 소재로 아득한 과거와 맞닿으며 당대 '의학'적 기표에 균열을 낸 것과 같이 전근대적 행정구역과 전원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이라는 기표조차 전복시키버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36] 심지어 한반도 내에서 '도회-시골'을 대립시킨 것보다 일본이라는 공간 속에서 옛것을 다루는 것이 의미적으로 횡단하는 질량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자명하다. 그렇게 이즈 반도는 '이즈노쿠니'라는 옛 이름으로 명명됨으로써 과거와의 연결이 전제된 공간이 되었으며, "녯적본의 휘장마차"와의 호응을 통해 역사적으로 전승된 시간이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한 맥락을 텍스트 속에 구현시켜 둘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공간적 차원에서의 전원지향성이다. 시에 드러난 현상은 마차를 타고 새색시와 함께 바닷가로 간다는 내용일 뿐인데, 그 사이사

명과 오인하지 않아야 한다. 아마 지금의 이즈노쿠니시도 도시 이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지명을 고른 듯 보인다.

35) 이 시를 일본 기행시 차원에서 분석한 김응교(「백석의 일본기행시와 환상」,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2013)와 정수연(「'이즈'라는 문학적 공간-백석의 일본 유학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4, 한국근대문학회, 2016)의 논의에서도 단순히 이즈 반도 지역을 호명한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백석이 조선일보 장학생으로서 1934년 《이심회 회보》 창간호에 발표하였던 수필 「해빈수첩」의 말미에는 "남이두시기해빈(南伊豆柿崎海濱)"이라고 이즈 반도 남부 지역의 가키사키 해변이라는 점만 정직하게 밝혀 두었었다. 따라서 「이두국주가도」에서 '국(國)'이라는 메이지 이전의 지명을 의도적으로 도입한 맥락은 조금 더 문제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6) 소래섭 역시 '이두국주가도'를 이즈 반도 자체를 가리킨 것으로만 설정하여 「탕약」에 나타난 '옛적'이 과거와 연결되는 속성인 것과 달리 「이두국주가도」에 나타난 '옛적'의 기표는 현재 또는 미래와 연결된다고 판단하였다.(소래섭, 앞의 글, 98면, 참고.). 하지만 오히려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는 모두 과거와의 연결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로도 여전히 유효한 옛것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내비치는 시편으로 보는 편이 보다 온전한 해석이라 생각한다. '탕약'은 오랜 선조들의 지혜가 전승되어온 것이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의 보양을 책임질 것이기에 마음이 맑아지는 대상이며, 과거 전근대로부터 이어져온 이즈 반도의 정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해줄 것임이 동시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의 수식어들에 더 초점을 맞춰보면 '옛적본'의 마차를 타고 '촌중'의 새색시와 함께 '먼' 바닷가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이즈 반도 자체가 상당히 전원 지역에 해당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차에 동승한 새색시를 "어느메 촌중의"라며 시골 출신인 것을 굳이 언급하고, 더 '먼' 바닷가를 향해 나아가면서까지 전원적 공간성을 여러 차례 강조할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적으로 낡은 구형 마차까지 동시에 등장시키면서 말이다. 특히 새색시의 경우 그 출신을 명백하게 시골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 지극히 의도적인 듯한데, 애당초 전원적 공간으로 향하고 있는 휘장마차 속에 일부러 또 다른 시골 출신의 인물까지 넣어둔 것은 지방적 색채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시인의 고집이 깊게 반영된 부분으로 읽힌다. 이렇게 일본을 일부러 더욱 전원적 공간으로 그려내려 하고, 그곳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한 백석의 시도는 당대 근대적 지식인의 집합체인 《시와 소설》을 통해 매우 유효한 대타항을 점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백석만의 전원지향적 시적 개성이 보유한 일종의 반근대성으로 당대의 근대성을 성찰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반근대성조차 구인회의 근대적 기획과의 접촉에서 생산되었던 것이며, 근대성의 한계를 사유하면서도 또 앞으로의 근대적 지평을 새롭게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반근대성의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백석의 평북 방언이 오히려 모던한 감각으로 읽혔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설적 모더니티를 동시에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유일한 비회원 참여자였던 백석의 역할은 굉장히 두드러지고 중층적이었으며 모더니티적 확장과 균형을 다채롭게 창출해내었던 것이다.

한편 제목에 명시된 지명을 제외하고는 「이두국주가도」에서 일본적 색채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백석 시가 지닌 개성에 속한다. 시의 내용만을 살펴보면 이곳이 일본이 아니라 조선의 한 어촌지역이어도 무방할 지경이다. 유일하게 지역적 특색이 감지되는 것은 바로 '금귤'이다. '금귤'은 '낑깡(金柑, キンカン)'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더 친숙한 일본 이즈 반도의 특산물인데, 백석의 의도적인 우리말 순화로 인해 지역색이 몹시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텍스트가 일본 고유의 색채를 드러내고자 하였거나 지역성을 효과적으로 환기시키고 싶었다면 이러한 언어 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백석은 사전에 발표했던 이즈 반도 여행 작품들에서도 일본적 분위기를 꾸준히 걷어내어 왔다. 「해빈수첩」에서도 이국적 풍물이 등장하긴 하지만 일본의 독특한 색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 어촌의 보편적인 정경을 그려내었고,[37] 심지어 「시기의 바다」에서는 '왕구새자리'라는 낯선 시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일본 생활문화의 상징이기도 한 '다다미(畳)'를 방언으로 풀어쓴 것에 해당한다. '왕골로 짠 자리'라는 뜻으로서 일본 문화의 고유명사를 일부러 해체시킬 정도로 백석의 의도가 상당히 다분했다는 것을 잘 알려준다. '낑깡'이야 한반도에서도 존재했던 품종이라 손치더라도 '다다미'의 의도적 순화는 조선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이질적 감각이나 낯설게하기를 파생시키는 백석 특유의 작법이라 여기기에 충분할 것이다. 일본적 색채가 최대한 결여된 일본의 정경과 아주 정확하게 제시된 일본 지명이 조응됨으로써 아이러니컬한 감성은 자연스레 배가될 수밖에 없다.

「이두국주가도」에 투영된 정서가 「탕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직설적인 긍정성을 드러낸다는 점도 특기할 법한 문제이다. 전통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탕약문화를 경험하는 것과 이국적 장소라 할 수 있는 일본 지방을 여행하는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두 '즐거움'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저 손쉽게 발원한 듯 보이는 감정이 너무 단순하고 원초적이게 적시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더 일차원적으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메시지는 더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당시 '기교파'로 불리기도 하던 이들의 문학이 고차원적 예술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인간적인 요소가 누락된 일종의

37) 고형진은 백석이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희」라는 소설에 영향을 받아 이즈 반도를 여행하고 「해빈수첩」을 창작하였다고 보는데, 이 두 작품이 배경만 겹칠 뿐 그 성격과 내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이즈의 무희」에는 일본의 전통 복식과 온천 문화 등 일본적인 색채가 짙게 드러나 있는 데 반해, 「해빈수첩」에선 그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해빈수첩」은 백석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의 바다와는 다른 이국적인 풍물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일본의 독특한 색채가 아닌 어촌 마을의 보편적인 생활방식과 풍경이 두드러진다."(고형진, 『백석 정본』, 문학동네. 2022, 395-396면, 참고)

'주객전도'로 전락되기도 한다면 백석의 안목과 진심은 더 묵직한 울림으로 자리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38]

4. 시적 감정의 변곡점과 발원처로서의 계기

한편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를 동시에 관류하고 있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두 시가 발표되기 불과 2달 전에 출간된 『사슴』에서는 비슷한 부류의 감정조차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슴』에서는 긍정적 느낌의 감상이 직접 표출된 적이 거의 없다.[39] 시어로 직접 나타나는 감정어로는 '슬픔', '서글픔', '서러움', '쓸쓸함' 같이 부정적 방향성을 지닌 것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김기림에게 '모더니티'가 서려있다는 고평을 들은 까닭도 시적 주제보다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에 의거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기림은 그동안 시적으로 과잉된 감상의 폐해를 일관되게 지적하며 자신만의 모더니즘 시론을 확장시켜 나갔었다. 아무리 백석이 전통적이고 향토적인 풍물과 제재를 활용했더라도 『사슴』에 나타난 절제된 감정 처리 덕에 김기림으로부터 후한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즐거움'을 전면화해버린 「탕약」이나 「이두국주가도」 같은 작품이 『사슴』의 대다수 시편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 김기림이 과연 백석을 호평하였을지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는 『사슴』의 창작원리와 그 자체로 대치된다.

샘터엔 오구작작 물을깃는처녀며 새악시들 가운데 내가조아하는 그이가 잇을

38) 낭시는 '공동체'를 "공동체에 반대하는 공동체, 낯선 공동체에 반대하는 낯선 공동체, 친숙한 공동체에 반대하는 친숙한 공동체"(장-뤽 낭시, 「마주한 공동체」, 모리스 블랑쇼·장 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박준상 역, 문학과지성사, 2005, 108면)라 설명한 바 있는데, 이는 '공동체'가 특수한 공동의 무언가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 자체에서 실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인회 동인지는 비회원 백석으로 인해 비로소 "공동체를 반대하는 공동체"로서 존재 가치를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

39) '맛있음'이 거의 유일하게 시어로 채택된 긍정적 감정어라고 할 수 있다.

것만 갓고
내가조아하는 그이는 푸른가지붉게붉게 柊柏꽃 피는철엔 타관 시집을 갈것만 가튼데

-「統營」 中, 《조선일보》, 1936.1.23.

오리야 나는 네가좋구나 네가좋아서

-「오리」 中, 《조광》, 1936.2.

달빛도 거지도 도적개도 모다 즐겁다
풍구재도 얼럭소도 쇠드랑볓도 모다 즐겁다

-「연자ㅅ간」 中, 《조광》, 1936.3.

인용한 시들은 모두 『사슴』 상재 이후에 발표된 백석의 작품이자 《시와 소설》의 수록작들보다는 공식적으로 먼저 게재된 것에 해당한다. 이때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바로 『사슴』에 없던 새로운 감정의 직접적인 발로이다. 보통 백석의 시세계를 다룰 때 『사슴』을 초기 시편으로 두고 그 이후의 여러 '기행시편'을 중시 시편으로 설정하는 편인데, 사실 그 시풍의 차이를 뚜렷하게 구획하는 것은 『사슴』 이후부터 직설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감정의 양상 및 지속적으로 틈입되는 긍정적 사유가 아닌가 한다. 《조선일보》에 발표된 「통영」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그이"라는 서술이 등장하는데, 1935년 12월 《조광》에 선발표된 뒤 『사슴』에까지 수록되었던 동명 작품 「통영」의 건조한 어투와 비교하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진폭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리」와 「연자ㅅ간」에서처럼 '좋음'이나 '즐거움'과 같은 감정이 작품 내적으로 꾸준히 요동침으로써 『사슴』과는 작시법적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것이 충분히 감지되게 된다.

약탕관에서는 김이올으며 달큼한 구수한 향기로운 내음새가나고
약이끓는 소리는 삐삐 즐거웁기도하다.

-「湯藥」 中

싱싱한 금귤을 먹는것은 얼마나 즐거운일인가.

-「伊豆國湊街道」 中

그 직후에 발표된 「탕약」과 「이두국주가도」의 시적 주체는 한층 더 주체적으로 '즐거움'의 감정을 토로한다. 김기림과 구인회가 예상했던 시풍이나 감각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백석이 『사슴』 출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적 변화를 모색한 것은 텍스트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 시적 변화폭의 가장 원초적 순간을 《시와 소설》에 구현해낸 것일지도 모른다. 어느 정도 가볍게 처리된 「통영」, 「오리」, 「연자ㅅ간」에 비해 주제적으로도 민족적 전통이나 일본 기행처럼 더 무거운 의제를 다룬 점도 특기할 법하다.[40] 앞으로 출현할 시세계의 작은 축도(縮圖)를 구인회 동인들과 그들을 주목하는 독자들을 향해 야심차게 선보인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즈음을 변곡점으로 하여 백석의 시세계에 나타나는 감정의 양상은 매우 다층적으로 발원하게 된다. 감정을 표면화하지 않거나, 유년화자의 순수성을 제외하고는 주로 부정적 감정만 노래하였던 백석이 그 뒤로부터 긍·부정을 넘나드는 다양한 정서를 활용하여 시를 남길 수 있던 것도 그 시간을 발판 삼아 자신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조탁해 나아간 덕분이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정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이두국주가도」의 창작 시기까지 고민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두국주가도」가 일본 이즈 반도 지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빈수첩」과 「시기의 바다」와 함께 일본에서부터 창작되었던 시편이라 판별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1934년 귀국하면서 수필 『해빈수첩』을 발표한 점과 첫 시 「정주성」을 1935년 8월 30일에 발표한지 불과 5개월 후에 시집까지 발간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이미 일본에서부터 상당량의 시를 창작해왔다는 예측도 충분히 타당성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이

40) 이숭원도 「탕약」에 드러난 정신적 가치가 대상의 소묘가 중심이 된 『사슴』의 세계와는 이질적임을 밝히고 백석 시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작품임에 틀림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이숭원, 「백석의 시적 지향과 표현방법」, 『비평문학』 제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145-146면, 참고.).

두국주가도」가 『사슴』 수록에서 배제된 시편이 되어 버린다. 물론 보유 시편을 전부 시집에 수록할 의무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집에서 누락시킨 작품을 구인회 동인지에 발표작으로 선정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전략적 작품을 새로 고안해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추론일 것이다. 둘째는 바로 감정의 처리 방식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사슴」에 수록된 「시기의 바다」는 건조한 시선으로 어촌 마을의 정경과 그 속의 '병인(病人)'들을 묘사하고 있다. 『사슴』 수록 시편이 공간을 구현하는 일관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두국주가도」의 정황이나 정서와는 상당히 이질적으로 구분된다. 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착상의 결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백석이 과거에 주목했던 '이즈 반도'를 변화된 작법에 적용시켜 재사유한 것으로 보는 편이 훨씬 설득력을 지닐 수 있으리라 본다.

결국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발표된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는 감정론의 관점에서도 백석 시세계의 전개 과정에 중요한 위치를 점해야만 한다. 기획 시편에 가까웠던 『사슴』에서 소거되어 있던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바로 그때였고, 그 중에서도 단연 시의성과 접목하여 전략적으로 표현된 작품들이 《시와 소설》에 소개되었던 것이었다. 작품 자체의 시적 완성도는 자칫 평범하게 보였을지언정 백석의 후기 시를 가득 메운 감정선이 원석 그대로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나와 나타샤와 힌당나귀」의 사랑과 번민, 「목구」의 "거룩한 아득한 슬픔", 「힌 바람벽이 있어」의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조당(澡塘)에서」의 다양하고 섬세한 감정적 변화 등 그 모든 절창(絶唱)들이 보여준 깊이의 한 기원이기도 할 것이다.[41]

41) 앞으로 백석의 전체 시세계를 대상으로 시기별 감정의 세목들과 변화의 추세를 고찰하는 작업을 통해 시적 감정의 생성 및 확장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다음의 후속 연구로 기약하고자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에 발표된 백석의 시 「탕약」과 「이두국주가도」를 중심으로 그의 문단교류에 담긴 자의식과 시적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백석은 본인이 직접 활동하였던 《조선일보》 계열 지면을 제외하고는 작품 발표에 꽤나 소극적이었고, 그 경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고수되어온 편이었다. 그런 그가 최초 외부 발표 지면으로 구인회 동인지를 택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매우 문제적 사건이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시 《시와 소설》에 글을 게재한 문인 중 백석만이 유일하게 비회원으로 참여하였다는 것도 그에게 문단 내 독특한 좌표를 마련해주는 지점이었다. 아무리 구인회가 단순 친목 단체를 표방했다손 치더라도 당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해 본다면 백석의 합류가 지닌 의미망은 중층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무언가 구인회 동인들과 비슷한 자장 안에서 공유되는 속성이 필연 존재하였을 것이며, 더 나아가 유일한 비회원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그들과 차별화된 사유가 백석의 고민 속에 자리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이었다.

먼저 「탕약」은 전통 한의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치유에 대한 긍정적 사유를 내포한 작품이었다. 당대 문단에서는 특히 모더니스트를 중심으로 병리적 세계관을 문학 속에 투영시켜 미학적으로 형상화해내는 경향이 빈번하였고 구인회 회원들의 작품에서도 다수 발견되는 편이었다. 근대적 서양의학을 채택하여 치유 불가능성의 심연을 노래하는 일련의 풍토가 지닌 신선함과 미학성에도 불구하고 민족적 전통의 부재 및 상실, 그리고 희망적 전망이 소거된 허무주의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던 것도 자명하였다. 이때 백석은 과거의 전통 문화와의 무한한 시간적 연결 및 여전히 미래에도 유효할 수 있는 희망적 인식의 발현으로서 당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민족 고유의 '한의학' 문화를 호명해버린 것이었다. 구인회 회원들이 세상을 병리적으로 인식하던 그 기본 기조 속에서도 그들의 한계를 성찰할 수 있는 방향을 주창해냄과 동시에 자신만의 전통을 사유하는 방식을 개성적으로 두드러지게 표

출할 수 있었던 셈이었다. 모두가 '병리'에만 관심을 두던 시절에 여전히 보존해야만 하는 '정상'이란 가치를 향한 보수적 시각의 대두는 구인회와의 대타인식적 사유를 통해서 잘 각인될 수 있었다.

「이두국주가도」의 경우에도 구인회 회원들이 보여준 경향과의 차별화 전략이 잘 발견되었다. 방언을 비롯하여 전통적 소재를 주로 차용하던 백석이 '일본'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했는데, 일반적으로 도회적 정경이나 근대적 문물을 중심으로 사유하던 구인회 회원들의 모습과 달리 '이즈 반도'라는 전원지역만을 꾸준히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사유를 전개해나갔다는 점이 상당히 특별하였다. 심지어 백석은 '국(國, 国)'이라는 메이지 시대 이전의 전근대적 지명을 일부러 활용함으로써 일본의 과거와 전원을 모두 함축하는 시공간을 만들어내었고, 그곳을 아주 순수하게 긍정하는 모습을 통해 구인회 회원들과 정서적 차별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다. 백석이 보여준 '전원지향성'과 일본 문화마저 고유 방언으로 대체해버린 집요한 면모는 그 개성을 더욱 심화해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반근대성'조차 구인회의 근대적 기획으로 인해 배태될 수 있던 것으로서 '근대성'의 한계를 성찰하면서도 그 근대적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는 모더니티적인 사유의 일환이었다. 구인회 회원들과 일종의 '대립'을 보여주면서도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의 '조화'나 '균형'을 구현해낸 것이었다.

하지만 「탕약」과 「이두국주가도」에 나타난 매우 직설적인 긍정적 감정의 발로는 시적 완성도를 상대적으로 저하시킨다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백석이 불과 한 달여 전에 발표하였던 『사슴』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감정의 출현을 보여줬으며, 그의 후기 시세계로 나아가는 감정적 초석이자 원형이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차대한 좌표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었다. 백석 시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감정들의 출현 양상과 확장 과정을 살피는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후속 연구로 기약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기본자료

강소천, 『호박꽃초롱』, 박문서관, 1941.
백석, 『사슴』, 자가본, 1936.
조선일보출판부, 『조선문학독본』, 조선일보사, 1938.
조선일보출판부, 『현대조선문학선집』, 조선일보사, 1938.
《동아일보》, 《만선일보》, 《문장》, 《삼천리문학》, 《시와 소설》, 《신동아》, 《여성》, 《인문평론》, 《조광》,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논문

김아름, 「구인회의 『시와 소설』에 나타난 문학적 글쓰기의 양상들」,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김응교, 「백석의 일본기행시와 환상」, 『한민족문화연구』 44, 한민족문화학회, 2013.
소래섭, 「백석 시의 '녯적'에 담긴 전통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57, 한국현대문학회, 2019.
유현수, 「이상 시에 나타난 근대 학문의 의미 고찰 - '과학', '수학', '의학'을 중심으로」, 『이상리뷰』 17, 이상문학회, 2021.
이숭원, 「백석의 시적 지향과 표현방법」, 『비평문학』 제45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이명희, 「『시와 소설』과 '구인회'의 의미」, 『상허학보』 3, 상허학회, 1996.
정수연, 「'이즈'라는 문학적 공간-백석의 일본 유학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34, 한국근대문학회, 2016.
최현식, 「'만주(북방)', 내적 망명 또는 환대의 場 - 白石의 '만주시편'의 경우」, 『대동문화연구』 제122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3.

단행본

고형진, 『백석 시의 물명고』,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고형진, 『백석 정본』, 문학동네. 2022.
곽효환, 『구보 박태원의 시와 시론』, 푸른사상, 2011.
국사편찬위원회 편, 『근현대 과학 기술과 삶의 변화』, 두산동아, 2005.
김윤식, 『김윤식 선집 5』, 솔, 1996.
김환태, 『김환태 전집』, 문학사상사, 1988.
모리스 블랑쇼·장 뤽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빅토르 어얼리치, 박거용 역,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과지성사, 1983.
신범순, 『꽃속에 꽃을 피우다 : 이상 시전집』, 나녹, 2017.
안도현, 『백석 평전』, 다산책방, 2014.
유종호, 『다시 읽는 한국 시인』, 문학동네, 2002.
이경수, 『백석 시를 읽는 시간』, 소명출판, 2021.
이숭원, 『그들의 문학과 생애-김기림』, 한길사, 2008.
이숭원, 『백석을 만나다』, 태학사, 2008.

조르주 캉길렘,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여인석 역, 그린비, 2018.
최동호·방민호·유성호·김수이 외, 『백석 시 읽기의 즐거움』, 서정시학, 2006.

【Abstract】

Self-Consciousness and Poetic Strategy in Baek Seok's First Literary Engagement : Focusing on the Significance and Positioning of His Works Published in *Poetry and Fiction*, the Guinhoe Coterie Magazine

You, Hyun-soo*

This study examines Baek Seok's poetic self-consciousness and literary strategy through his poems "Tangyak" (Herbal Decoction) and "Idugukjugado", published in the literary coterie magazine *Poetry and Fiction* by the Guinhoe group. Baek Seok's participation in this magazine marked his first foray into an external literary circle and is notable as he was the only non-member contributor, making it a particularly significant and problematic case. Given the political position of Guinhoe in the literary field at the time, Baek Seok's involvement invites complex interpretation. Although his identity as a non-member set him apart, he likely shared certain aesthetic orientations with Guinhoe members while maintaining his own distinctive voice.

The poem "Tangyak" positively evokes the traditional Korean practice of herbal medicine and can be read as a counter-discourse to the pathological worldview prevalent among contemporary modernist writers. While modernist literature adopted Western medical discourse to aestheticize incurability and despair, "Tangyak" restores ethnic imagination and introduces a hopeful temporality rooted in Korean tradition. This can be seen as a dignified poetic gesture to preserve 'normality' amid a literary climate focused on 'pathology.'

Meanwhile, "Idugukjugado" diverges from the typical representations of Japan in Korean literature—often urban or modern—by choosing the rural landscape of the Izu Peninsula. This location, also featured in Baek Seok's other poems such as "Seaside Notebook" and "The Sea of Kakizaki," is uniquely rendered through the pre-Meiji term "Kuk(國, 国)," encapsulating both a pre-modern temporality and a rustic sensibility. The use of dialect to displace Japanese linguistic markers further emphasizes his po-

* Korea Univ.

etic distinctiveness. However, this anti-modern tendency within Baek Seok's work also evolved in dialogue with Guinhoe's modernist project, allowing for both a critique of and expansion upon the boundaries of modernity. Ultimately, his poems present a form of opposition that achieves harmony and balance within the broader literary discourse of the time.

Additionally, the emotion of "joy," somewhat explicitly expressed in both poems, may seem to undermine their poetic density. However, this emotional tone is significant in Baek Seok's poetic development, as it differs from the emotional register found in his earlier collection *Deer* (Saseum) and serves as a prototype for the emotional depth of his later celebrated works. Thus, these two poems can be interpreted as transitional pieces that bridge *Deer* and his later poetry in terms of emotional poetics.

Keywords: Baek Seok Studies, Guinhoe, Tangyak, Pathology, Traditional Korean Medicine, Idugukjugado, Japan, Emotion, Pleasure, Transformation Pattern

접수일: 2025.06.30. ‖ 심사일: 2025.08.06. ‖ 게재확정일: 2025.08.06.